

2021년 1월 10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편 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3절)

◎ 찬 송 / 286장(통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28절(신약p.333)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6.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말씀선포 /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도의 교제가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해 기도의 거룩한 부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부탁을 받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깨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고 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 말하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살펴보면,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지체들을 위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1. 성도의 성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한 내용은 그들의 성화였습니다. 본문 19~24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다듬어 주시길 구했고, 또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 집니까? 때로 어떤 교인들은 단지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거룩함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행동을 고치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거룩함의 전부는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오직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성도들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성도의 성화를 위해 기도한 것은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구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이러한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도고기도는 서로에게 닥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것으로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욱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2.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 본문 25~2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대부분의 편지에서 마지막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인 동시에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힘인 동시에 성도들이 세상

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죄인에게 임할 때만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거듭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함으로써만 내면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에게 기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지기 불가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간절하고도 열렬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바울은 반문하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넉넉히 부어 주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성도 모두가 더욱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힘 있게 살도록 그 삶을 이끄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로 도고하는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가 풍성히 넘치도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도고기도를 들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성숙해 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65장(통484)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 폐 회 / 주기도문